

[붙임] 에세이 작성 서식

제 목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 84 년생 김희민		
소속 대학	한림대학교	소속 학과	사회학과
학 번	2020	이 름	문**
이메일		연락처	

제 2 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전범인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하 '아이히만')은 독일의 SS 중령으로, 유대인 박해의 실무 책임자이자 악의 평범성을 다룬 안나 하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속 주인공이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은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며 고로 스스로가 무죄라 주장했다. 아이히만이 재판장에 서기 전, 사람들은 아이히만을 사이코패스나 괴물, 악마적인 습성을 가진 인간으로 상상했지만 그의 외형은 지극히 평범했으며 정신 감정 전문가의 감정 소견 또한 정상이었다. 500 만 유대인 학살에 기여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하고 근면한, 상부의 명령에 충실했던 공무원이었을 뿐인 아이히만. 이렇게 '악'은 평범하며, 누구나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녹아있다. 그래서인지 간혹 무엇이 악인가 구분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곤 한다. 사회 구성원인 나 또한, 예외가 될 수 없겠지만.

최근 불거진 기안 84 웹툰 속 여성혐오 논란이 적절한 예시 중 하나이다. 웹툰 속 봉지은이란 20 대 여성 캐릭터는 회식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벌, 스펙, 그런 레벨의 것이 아님.' 이라 말하며 배 위에 '조개'를 깨부순다. 이후 남성 팀장은 봉지은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렇게 됐어. 내가 나이가 40 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잖아." 라 말하고 그 뒤 주인공은 "잖어요?"라 묻는다. 봉지은이 남성 상사와 성관계 후 채용이 되었다는 명확한 암시를 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00 년대 중후반 남초 사이트에서 형성되었던 전형적인 여성혐오 방식과 웹툰에서 표현한 여성혐오적 세계관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성기와 비슬아치를 합성한 단어인 '보슬아치'는 2006 년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다. 여성이란 성별이 곧 비슬이자 권력이 된다는 여성혐오적 통념인데 이를 대형 플랫폼 내에서, 매스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유명 작가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8 년, 한국 사회에서 겨우 자리를 잡은 미투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조롱이기도 하다. 이로 인한 여성 단체와 여성 독자의 반발

이 청와대 청원창까지 달굴 정도였으니 그 논란의 크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반발을 두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독자, 혹은 '퇴출 요구는 파시즘이다'라는 사단법인 웹툰 협회의 반박 또한 존재했는데 필자는 이 의견에 반론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지긋지긋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누가 '혐오'의 자유까지 포함했는지 따져 묻고싶은 심정이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상처를 주더라도 그 자유를 꼭 지켜야만 겠다면 그 타인의 자유와 인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지 묻고 싶다. 유치하지만 여성들이 여성혐오적 콘텐츠에 불쾌감을 느끼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왜 억압하는지도 의문이다. 기안 84는 이전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청각 장애인 '여성'을 비하해 논란이 된 전력이 있다. 두 번의 약자 혐오 논란에도 자성은 없었다. 불쾌감을 느끼는 독자는 존재하는데 대형 웹툰 플랫폼도, 작가도 책임지지 않는다. 웹툰 전체의 맥락을 보라는데 혐오적 통념을 재생산하고 전파해도 되는 맥락이란 무슨 맥락인지 묻고싶다. 현 사회를 풍자한 것이라는데 세상 그 어떤 풍자가 풍자의 대상을 강자나 기득권이 아닌 소수자로, 약자로 설정하는지도 묻고싶다. 그가 풍자하고자 한 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스펙을 가지고도 점수 조작으로 탈락하는 여성들의 '현실'인가, 아니면 그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여성혐오적 세계관 속 현실인가?

기안 84의 인간성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약자 혐오를 밥 먹듯이 하는 이들이 악한 인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는 과거 그가 작품에서 사용한 혐오 표현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았다. 무엇이 논란에 중심에 섰는지 공부해보려 하지 않았기에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된 것이다. 이쯤에서 아이히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아이히만이 유대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한번만 더 사고했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바로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수많은 유대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역사에 만약은 존재하지 않는다지만 생각해보게 된다. 악은 평범하다. 우리 곁에 있다. 그래서 서늘하고 섬뜩하다. 기안 84가 여성을 혐오하려는 의도로, 혹은 전형적인 여성혐오적 편견과 통념을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봉지은을 '능력은 없지만 권력있는 남성과의 성관계로 채용 되는' 여성으로 설정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사과문에 나오는 '봉지은을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이었다는 말 또한 믿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는 성찰하지 않았고 사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번 특정 독자들에게, 이 사회의 여성들에게 상처를 줬다. 더불어

그 웹툰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일 10대 독자들에게 여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심어주었다. 혐오 표현을 사용해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웹툰 협회까지 나서서 편들어주니 이대로 방치하면 아마 또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까지는 과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청와대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의 온라인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기안 84의 연재 중단, 예능 프로 하차를 절실하게 외치는 이유는 단순히 '화가 나서', 웹툰 협회의 말처럼 '사회적 아젠다의 당위가 작가에게 가하는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혐오 표현을 성찰하는 자세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견고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누구든, 의도치 않고, 혐오적, 차별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앞서 말해온 것처럼 악은 평범하니까. 인간은 자칫하면 악해질 수 있고,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줄수 있는 존재이니 말이다.

물론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에 함몰되어 혐오표현을 사용한 자를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는 자세 또한 옳지 못하다. 그러나 웹툰 속에서 20대 여성을 대표하는 봉지은이 성관계를 통해 채용되는 장면은 여성들에게 유구한 여성혐오의 역사를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미투운동을 전개해 온 이들에게 무력감과 상처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 또한 인지해주었으면,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펜을 들었다. 우리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길 바라며, 결국 이런 논쟁과 반발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임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안나 하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속 문장을 소개하고 마치겠다.

"그가 가진 근면성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무사유' 때문이다."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기안 84의 여성혐오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들에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52763>

기안 84 약자 혐오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간과하는 것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kian84-misogyny\\_kr\\_5f3c92bec5b6d8a9173f73a3?utm\\_id=naver](https://www.huffingtonpost.kr/entry/kian84-misogyny_kr_5f3c92bec5b6d8a9173f73a3?utm_id=naver)

‘여혐 웹툰’ 논란, 왜곡된 표현의 자유 [정지혜의 빨간약]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96182>

여성혐오 논란 빛은 ‘기안 84 연재 중단 요구’ 둘러싼 쟁점과 비판 [위근우의 리플레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29431>